



불기2557(2013)년 총무원장 자승스님 신년 기자회견

세상과 함께하며 희망을 만들겠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1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이웃의 아픔을 나누고 희망을 만들어가는 불교가 되겠다고 밝혔다.

“2009년 11월 5일 취임하면서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불교’를 발원하였고, 지난 4년 동안 한국불교가 시대적 소임을 다하고 발전하기 위한 과제들을 구체화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이 있었다. 하지만 그 성과로 주지 인사과과제도 도입, 사찰 토지처분금의 목적사업기금 적립, 승려 노후복지제도 시행, 해외특별교구 설립 등이 처음으로 실현되었다. 또한, 승가 교육제도의 개선, 자성과 채신 결사의 추진, 전통사찰에 방재시스템을 구축한 일,

종단 의례의 한글화 시행 등은 제33대 집행부의 의지와 사부대중의 지혜와 원력이 모인 결과이다”고 평가했다.

이제는 제33대 집행부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2013년을 맞아, 종단은 한국불교가 대승불교의 시대적 면목을 바로 갖추고 국민 속에서 수행하는 한 해가 되길 주문했다. 이런 바람으로 “세상과 함께하며 희망을 만들겠습니다”라는 서원을 정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종단의 각종 중무와 사업을 발표했다.

세계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 국민의 삶도 많은 어려움에 부딪쳐 있다. OECD 국가 중 최장 노동시간, 최고의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 종단은 고통의 바다에서 중생을 모두 건지겠다는 대승

보살의 서원처럼 현재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일을 찾아 할 예정이다. 실직가장, 장애인, 청소년, 다문화가정 등 특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 자살예방센터 활동 강화, 청소년 심성 프로그램 운영, 자비 나눔의 세계적 확산을 위해 아프리카 케냐 지역에 학교를 개설하는 등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통문화의 보존·활용을 통해 그 가치를 널리 알리고, 지속적인 채신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제33대 집행부가 추진한 사업의 회향을 통해 불교중흥의 씨앗을 틔우는데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지족(知足)이 제일부(第一富)라 했듯이 만족함을 알면 그것이 가장 큰 자산이라며, 지혜의 눈을 뜨면 자신이 있는 곳과



나아갈 바를 알아 만족할 수 있고, 자비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이웃이 보인다며, 모두 함께 의지하며 지혜와 자비의 마음으로 정진하여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길 기원한다며 신년기자 회견을 마무리했다.

사진제공_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 국제팀



조계종 국제불교학교, 첫 졸업생 배출

2월 22일 조계종이 한국불교 세계화에 이바지할 인재양성을 위해 2011년 처음 설립한 비구니 영어전문교육기관 국제불교학교가 첫 졸업식을 용인 화운사에서 봉행했다. 개원 당시 “한국불교 세계화에 일조하겠다”며 입학한 9명의 스님은 2년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한 명의 낙오자 없이 졸업하였다. 스님들은 이날 졸업식에서 “부처님 제자로서 용기와 자비, 지혜로 모든 순간에 임할 것”이라며 “열린 마음, 마음 챙김, 열렬한 탐구의 자세로 일상의 모든 활동에 임하겠다”고 서원했다.

이날 졸업식에서 학장 법인스님(교육원 교육부장)은 “종단이 처음으로 시행하는 국제불교학교라 시행착오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모든 분이 도와줘 영광스런 졸업

을 할 수 있었다”며 “2년간 학인들을 지도한 교수들과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준 화운사 대중 스님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교육원장 현웅스님은 치사를 통해 “국제불교학교는 현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이 한국불교 세계화의 원력과 목표에 따라 개설 운영돼 올해 첫 졸업생이 배출됐다”며 2년간 교육과정 마친 스님들을 격려했다. 이어 스님은 “영어로 소통하고 지적 정보를 공유하는 요즘 시대에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해서는 영어를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졸업 이후에도 지속해서 연마해서 불교를 어떻게 표현하고 포교해야 하는지 고민도 하면서 모범적으로 생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운사 주지 도현스님도 “화운사에서 국제불교학교 첫 졸업식을 하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세계 넓은 곳으로 나가 한국불교를 널리 알려주길 바란다”고 축하했다.

운문사 주지 일진스님은 오래전 어른스님께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 여쭈었을 때 한자 공부를 하라고 해서 열심히 한 결과 현재 강사로 살게 되었다며, 지금 이 시대엔 분명 영어를 배우는 것이 세상 흐름에 발맞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졸업생들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며 한국불교를 세계에 전하는 데 일조해달라고 부탁하며 졸업생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했다.

9명의 졸업생 가운데 성제스님은 아르헨티나에서 현지인 포교를 담당하며, 청하스님과 정효스님, 태허스님은 미국으로 떠난다. 성원스님, 불림스님, 일양스님, 운성스님, 원경스님 등 5명은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등을 맡아 한국을 찾는 세계인들에게 불교를 알려나갈 계획이다.

특히 성제스님은 이미 한 달 전에 인수인계를 위해 아르헨티나로 떠나 졸업식에는 참석을 못했다. 하지만 졸업식 내내 인터넷으로 행사를 함께하였으며, 성제스님도 마지막 졸업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학인 스님들과 함께 생활하며 불교 영어를 지도했던 교학처장 지정스님은 “언어만

배웠다고 해서 포교할 수 있는 게 아니므로 불교에 대한 총체적인 교육을 진행했다”며 “출가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 소양 외에 바른 불교관을 정립하는데 무게를 두고 학사를 운영했다”고 수업 기초를 설명했다.

특히 다양한 특강을 통해 스님들이 편견 없이 세상을 보고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중점을 뒀다. 외국인 대상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어떻게 가르치고 표현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도 중요했다. 지정스님은 “학인 스님들이 경직된 사고를 벗어던지고, 자신의 노력으로 언어라는 장벽도 넘어섰다는 자신감 덕분에 해외 진출도 결정할 수 있었다”며 “졸업해서도 스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절차탁마하고 다양한 안목으로 멀리 볼 수 있는 능력을 길러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계종 국제불교학교 031-323-5063

◆ 국제불교학교는 2년 4학기 과정으로, 불교와 영어에 대한 강의가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1학년 때는 불교교리와 템플스테이에 대한 수업이 중심이고, 2학년 댄 대승경전, 선 수행, 위빠사나 수행, 서양의 불교스승 등을 배웠고 대승의 철학과 실천을 주제로 공사상, 여래장 사상 등을 공부했다. 2학기 때는 호주 정혜사 지광스님이 선과 창의성에 대해 특강을 가졌다. 스피치 교육이나 심리치료, 상담, 템플스테이 운영 등의 특강 또한 진행되었다. 미국 동부와 서부지역 사찰과 선센터 등을 순례하는 연수의 기회도 주어졌다.

동국대학교 참사람봉사단, 대학 최초로 발족한 대학 사회봉사 대표 단체

동국대학교 참사람봉사단(단장 김희옥 총장)은 1997년 6월 우리나라 대학 최초로 발족한 대학 사회봉사의 대표 단체다.

동국참사람봉사단은 대학생들이 사회의 훌륭한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내·외 봉사프로그램을 기획·진행하고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장려하는 등 대학의 사회 기여라는 책임을 수행하는 데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다양한 해외 봉사프로그램을 운영하

고 있는데, 해외 저개발 국가들의 재난 발생 시 구호성금 지원은 물론, 1999년 중국으로 해외봉사단원을 처음 파견한 데에 이어, 대학봉사협의회와 연계해 인도, 러시아, 키르기스스탄 등 다양한 국가로 봉사단원을 파견해왔다.

2008년부터는 매년 하계와 동계 방학을 이용해 20여 명 내외의 단체 학생 봉사단을 해외로 파견했다. 몽골과 캄보디아, 인도, 미얀마 등으로 파견을 나간 학생들은 교육 환경 개선사업과 문화교류, 재능기부

등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수행해 동국대학교는 물론 대한민국을 알려왔다.

특히, 2012년 여름에는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동국참사람봉사단 소속 학생 30명이 파견돼 노인요양병원에서 쉼터 설립 봉사활동을 펼쳤다. 학생들은 봉사활동과 함께 현지 국가의 대학생들과 정치·사회·문화를 학습하고 토론하는 유익한 시간을 갖기도 했다. 또한, 지난 1월에는 25명의 학생이 라오스의 나후지역 우듬싸이에서 10일간 교사신축 작업과 현지 아이들을 위한 교육·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밖에도 동국참사람봉사단은 연탄봉사·교육봉사·사랑의 김장 담그기·배식봉사 등 지역사회 소외 이웃과 저소득층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국내 정기적인 나눔 봉사활동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 봉사활동을 통해 동국참사람봉사단은 글로벌 사회에서 우수한 역량과 인성을 갖춘 리더를 양성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대학의 사회기여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다.

글_ 동국대 참사랑봉사단 김중애 02-2260-3058



▶▶ 13차 샤카디타 세계불교 여성대회 참가기

2013년 1월 5일부터 12일, 제13차 샤카디타 세계여성불자대회가 인도 바이샬리에서 “대중과 소통하는 불교”라는 주제로 열렸다. 한국은 2004년 제8차 대회를 중앙승가대학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한국에서는 전국비구니회의 회장 명우스님과 봉녕사 율원장 적연스님, 중앙승가대 교수 본각스님 등 여러 중진 스님들과 학인 스님들, 그리고 국제포교사회 회원들, 불교여성개발원 회원들, 그리고 젊은 여성불자 교육프로그램인 GEP을 수료한 통역 자원봉사자 6명을 포함해 총 40명이 참가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32개국에서 총 600여 명이 참가하였다 고 한다.

인도는 불교 기반이 약하고, 바이샬리의 주위 환경이 열악하여 대회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인도의 불교 신자는 인구의 1퍼센트도 안되며, 불교 관련 유적지가 모여 있는 북동 인디아의 일부 지역에만 불교 사원들이 있을 뿐이다. 현지 교단이나 신자들의 재정적 물적 지원 없이 국제 대회를 치르는 만큼 대회 진행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까다로운 인도비자 발급과정에서부터 항공권 수배, 그리고 인도에서 가장 소득이 낮다고 하는 비하르 주의 작은 도시인 바이샬리의 대회장까지 가는 그 자체가 하나의 모험이었다.

대회장소인 마하프라자파티 사원은

베트남의 노비구니 스님이 부처님의 양모인 마하프라자파티가 출가하여 최초의 비구니가 된 이곳 바이샬리에 절을 짓겠다는 서원을 세워 불사를 시작한 곳이라 했다. 올해 10월 23일 완공되면 초종파적 비구니 수계법회를 연다고 하였다. 그러나 아직 공사 중이어서 마당에 텐트로 만든 임시 대회장에는 추운 바람이 몰아쳤고, 전기가 불안정하여 몇십 분에 한 번씩 장내 마이크가 꺼지는 형편이었다. 사람들은 가지고 온 옷을 모두 꺼내 입고 담요와 슬리퍼를 둘러쓰기도 하였지만, 설산에서 수행하는 수행자의 마음이 짐으로 다들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매일 아침 각국 스님들이 이끄는 명상으로 시작하여 오전 논문 발표, 오후 논문 발표, 각종 워크숍, 저녁 공양 후 문화행사 등 일주일간의 일정이 쉴 새 없이 돌아갔다. 논문 발표 세션에서는 총 45편의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영국 출신으로 티베트 비구니이자 명상가, 저술가로 유명한 텐진 파모 스님이 발표한 “노년을 찬미하며”라는 논문과 페미니스트 종교학자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리타 그로스가 발표한 “여자로 태어나는 것은 장애인인가?” 등에 관심이 쏠렸다. 동학사의 효준스님은 “당신은 보살입니다 - 여성 재가불자를 보살이라 부르는 이유에 대한 소고”라는 제목의 흥미있는 논문을 발표하여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일주일간 대회가 끝난 후 불적지 순례



가 있었다. 이미 인도에 여러 번 다녀왔는데도 이번 순례는 여러 가지 점에서 특별하였다. 룸비니에서 시작해서 보드가야, 사르나트, 라자그리, 바이샬리로 이어지는 부처님의 궤적을 따라가면서 그

분이 80년 동안 어떤 인생을 사셨는지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었고, 내 삶과의 연관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다. 아마 이것이 가장 큰 수확인 것 같다.

글_ 조은수(불교여성개발원 불교여성연구소 소장)

로스터월드, 캄보디아 청소년들에게 이 · 미용 기술 전수

국제구호 · 지역개발단체 로스터월드는 캄보디아 시엠폴에 2011년부터 함께 일하는 재단과 양천로터리클럽의 지원을 받아 사회적 기업인 로터스 희망 미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로터스 희망 미용센터는 이미용 기술교육을 통해 캄보디아의 빈곤청소년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자립기반을 다지는 데 목적을 둔다. 이는 지역빈곤청소년들의 빈곤문제해결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훈련생은 가정방문을 통해 환경이 어려운 청소년들 가운데 열의와 태도 등을 평가하여 선발되고, 선발 후에는 이미용 교육이 무료로 제공되며, 통학자전거 및 생필품을 제공하여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2012년 10월에 입소한 19명의 3기 훈련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으며 총 12개월의 교육과정은 기초반(6개월), 심화반(6개월)으로 이루어진다. 교육과정이 끝나면 3개월간 미용실 현장실습을 진행하여 더욱 현장감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교육담당 전문 인력은 한국인 1명과 캄보디아 현지인을 포함하여 총 5명이다. 헤어 중심으로 메이크업과 네일 관리 교육까지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용전문인력의 교육을 통해 고급기술을 전수하고 있다.

현재까지 수료생은 34명으로 이 중 50%가 지역에 있는 현지 미용실이나 외국인 미용실에 취업하였고, 그 밖에도 심화반에 진



급하거나, 센터 스태프로 채용되어 대부분 미용업에 종사하고 있다. 또한, 오는 2013년 3월에는 로터스 희망 미용센터의 미용실을 개점할 예정이며, 디자이너 과정에 있는 1기 수료생 4명을 디자이너로 채용하여 함께 일할 예정이다.

그중 한 명인 쓰레이룻(18세, 초등학교 졸업)은 '학교를 제대로 졸업 못해, 글을 쓰는 것이 힘들어서 이론시험이 힘들었다. 얼마 전 미용실 임시 오픈 때 손님의 머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 나오고 손님도 만족스러워했을 때가 가장 보람 있었다. 친구들보다 솔직히 조금 기술이 떨어지긴 하지만, 더 열심히 해서 디자이너로서 일하는 것이 꿈이다.' 라고 포부를 밝혔다.

수료생들은 자신의 삶을 위해 열심히 공



부하고 기술을 익힐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해 시엠폴 인근 마을과 고아원 8개 기관을 돌며 한 달 평균 4회 미용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2012년 1월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총 43회에 걸쳐 1,480명의 지역주민이 미용봉사의 혜택을 누렸으며 매회 20명 정도의 수료생들이 함께하고 있다. 교육을 통해 자립의 기반을 다지며,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까지! 오늘도 가위를 잡고 열심히 공부할 훈련생들의 꿈으로 캄보디아의 긍정적인 미래를 그려본다.

로터스월드 후원문의 02-725-4277

www.lotusworld.or.kr

〈사진〉 ① 기초반 미용교육 실습현장

② 로터스 희망미용센터 훈련생들의 고아원 미용봉사

③ 통학 자전거를 받은 훈련생들



천호희망재단, 네팔 불자 마을에 희망 심다

천호희망재단(이사장 월서스님)은 2월 15일 네팔 산악지대 밤피마을 보우다초등학교에 물탱크와 화장실을 지원하고 돌아왔다고 밝혔다.

네팔 밤피 마을은 수도 카트만두에서 자동차로 하루를 꼬박 달려야 도착하는 오지 중의 오지이다. 동국대 불교학과에 재학 중인 네팔 출신인 법상스님의 고향이기도 한 마을은 150가구가 살고 있으며 대부분 불교 신자이다. 월서스님은 법상스님으로부터 마을의 딱한 처지를 전해 듣고 지원을 결심했다. 이 마을은 빗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탓에 어린이들이 배탈에 시달리고, 화장실이 없어 각종 질환으로 힘들게 살고 있었다.

월서스님과 관계자들은 30일 오전 해발 2,000m가 넘는 비포장도로를 16시간 달려 자정이 넘어서야 마을에 도착했다. 도중에 바퀴가 터지는 등 차가 고장 나기도 했다. 하루를 넘기고 도착한 일행을 마을주민과 학생들이 따뜻하게 맞아 주었다. 현재 보우다초등학교에는 40여 명의 어린이가 공부하고 있다.

월서스님과 일행들은 현재 40여 명의 어



린이 공부하고 있는 보우다 초등학교와 결연을 하고, 학생들에게는 학용품과 배드민턴, 축구공 등을 전달했다. 천호희망재단은 이번 결연을 계기로 학교와 마을 발전을 위해 앞으로 매달 5,000루피를 후원할 예정이다.

월서스님은 "네팔 어린이들이 열심히 공부해 나라의 주역이 되고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불제자로 자라길 바란다"며 "밤피 마을 불자들을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천호희망재단은 부처님 자비로 지구촌 이웃들을 돕기 위해 2012년 6월 활동을 시작했다. 캄보디아 오지마을 초중고등학교에 매월 정부 교과서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미얀마와 라오스로 활동 영역을 넓혀 교과서를 제공할 계획이다.

천호희망재단 02-919-0211

더프라이스, 불교박람회에서 작품 재능기부를 통한 전시회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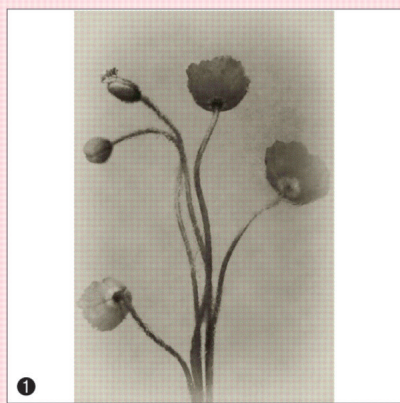
오는 3월 7일, 국제개발구호단체 더프라이스는 제6회 불교박람회에서 전시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를 위해 더프라이스는 새로운 5인의 작가(앨리엄 헐릭, 이재용(사진), 이시우(유화), 존 위드먼(유화), 한지민(판화), 박대조씨를 영입하였고, 다양한 분야의 작품 재능기부를 펼친다.

이 중 이재용 작가는 여러 사진을 찍어 합쳐 만든 흑백의 작품을 통해 은은한 동양미를 느낄 수 있어 종교계를 넘어 중 · 장년층에게 인기가 예상된다. 신세대층을 공략하게 될 존 위드먼의 작품은 잊고 살았던 낡고 오래된 책, 음반, 박스 등 옛 추억 속으로 집중하게 할 것이다. 작가 5인의 작품 수익금은 더프라이스의 미얀마 교육사업으로 후원 된다.

전시회를 통한 보는 이들의 즐거움은 물론, 커피의 맛과 향을 즐길 수 있는 캡슐 커피도 판매되며 수익금은 모두 후원금으로 사용된다. 박람회 티켓 판매 수익의 일부 역시 단체에 후원 된다.

여섯 번째 개최되는 불교박람회는 불교와 관련된 모든 것을 만나볼 수 있는 자리이며,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방식과 달리 이번에는 비영리 분야의 나눔이 개성되어 다채로운 행사로 꾸려진다. 더프라이스 전시 부스는 나눔 특별관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7일부터 10일까지 총 나흘 동안 학여울역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열린다.

더프라이스 후원문의 070-7596-9988~9 / www.thepromise.or.kr



① 이재용 작가 작품 : 시선의 기억 # 개양귀비, 2011

② 존 위드먼 작가 작품 : Book Cover, 2012

뉴욕 불광선원, 부주지 헤민스님 대중법회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미국 내 한인 승려 교수인 헤민스님(뉴욕불광선원 부주지)은 2월 3일 뉴욕불광선원(주지 휘광스님)에서 200여 명의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명상을 겸한 법문을 했다. 힘들고 외로울 때엔 관세음엄마에게 모든 것을 얘기하는 불자들이 되어 행복하고 즐거운 날들을 살아가기 바란다고 설법했다.

헤민스님은 불자들에게 눈을 감게 하고 “관세음엄마 힘들고 외로울 때 내 곁에 있어줘요”란 기도과 노래의 명상을 함께했다. 명상 후 헤민스님은 “자녀를 행복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 자녀는 부모를 닮아가기에 부모의 행복한 삶의 모습이 곧 자녀가 행복해 지는 길이다.”라며 부모의 역할을 강조했다.

단행본 중 43주째 한국에서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썸앤파커스)의 저자인 헤민스님은 고교를 졸업 후 미국으로 유학, UC버클리(샌프란시



스코에서 종교학학사(B.A.), 하버드대학교에서 종교학석사(M.T.S.), 프린스턴대학교에서 철학박사(Ph.D.)학위를 받았고, 2007년 메사추세츠주에 있는 햄프셔대학의 종교학 교수로 임용돼 현재까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하버드대학교 재학시절인 1999년 휘광스님을 은사로 삭발식을 하고, 휘광스님의 상좌(행자)가 된 헤민스님은 1년 후인 2000년 2월 사미계(예비승려)와 2007년 6월

비구계(승려)를 받았고, 불광선원 총무를 역임한 후 2011년 1월 부주지가 되었으며, 이후 격주로 한 번씩 대중법회에서 법문하고 있다.

성직의 길을 걸어갈 것을 권유해 오늘의 헤민스님을 있게 한 휘광스님은 “헤민스님은 영혼이 맑고 수행자가 지녀야 할 정신이 올곧다. 모든 것을 본인이 다 알아서 잘하기에 앞으로 불광선원을 이끌어 갈 수 있다

고 생각돼 부주지를 맡게 했다”며 “그는 최고의 지성을 가진 한국 승려로 한국불교를 새롭게 전환해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적임자임엔 확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헤민스님이 본 휘광스님은 “후배 스님들과 불자들에게 잘 배풀어 주는 스님, 한 번도 새벽예불을 다른 스님들에게 맡기지 않고 스스로 행하여 몸으로 보여주는 스님, 어떤 사람이라도 포용할 수 있는 이해심 많은 스님”이라 말했다.

1996년 10월 휘광스님(현재 해미동부특별교구 교구장)에 의해 창건된 뉴욕 불광선원은 미국에 유학 온 스님들이 신분이나 재정적인 면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고 편안하게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래서 1998년부터 공부하는 스님들을 위한 장학회를 만들어 한국에서 유학 온 스님들 후원(헤민스님도 포함됨)에 앞장서 오고 있으며, 현재 730세대가 신도로 등록해 불도를 닦고 있다.

글_ 뉴욕 불광선원 총무 문종스님

히말라야 수행자 영봉스님, ‘재네팔한인회장’ 추대

수행처를 히말라야로 삼고 26년째 네팔을 찾고 있는 영봉스님이 제6대 재네팔한인회장으로 지난해 12월 8일 추대돼 화제다. 스님은 안나푸르나 4봉을 오른 산악인으로서의 경험뿐만 아니라 현지인 대상 한국어 학당을 열어 여러 방면에서 폭넓은 인맥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 스님은 회장선거에 나선 계기를 묻는 말에 “불교발상지인 네팔에서 정작 불교인들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현지에서 선교를 펼치는 목사는 200여 명에 달하지만, 한인회에서 스님이나 불자의 활동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회장 선거에 나서게 된 계기를 말했다. 5대 회장은 목사가 맡아 2년간 임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영봉스님은 “종정스님이나 종단을 대표한 분들이 이곳을 방문했을 때 스님이 한인회장으로 환영하면 좋지 않겠냐”며 “네팔을 찾는 모든 이들이 한인회의 문을 두들길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조직 체계를 바로 세우고 대외적인 활동 영역을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봉스님은 특히 교민뿐 아니라 네팔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예기치 않은 문제가 생겼을 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한인회가 되고 싶다고 강조했다. 현재 네팔에 사는 교민은 약 700여 명이고, 공관직원, 사업가, 유학생 등 다양한 계층이 생활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2006년에 직항노선을 개통하면서 연간 10만 명이 왕래하는 곳이 됐다. 그래서 한국교민회의 역할 비중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영봉스님은 “매년 각종 산악사고로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해 아까운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대사관은 행정기관이



다 보니 사무적으로만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화나 의료, 법률, 비자 등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를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 4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스님은 “거대한 산 히말라야를 오르며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웃들에게 돌려줄 때가 됐다고 결심했다”며 “종교와 인종을 떠나 타국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주민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봉스님은 10대 시절 우연히 한 스님으로부터 걸림 없이 마음껏 공부하는 길은 수행자가 되는 것이라는 말을 듣고 그 길로 바로 출가했다. 1984년 비구계를 받고 선방에서 좌선하던 스님은 탁발과 만행을 통해 ‘수행자라고 해서 가만히 앉아 얻어먹을 순 없다’는 화두를 얻는다. 이후 선방을 나와 히말라야를 비롯해 인도, 러시아, 일본 등 세계 방방곡곡 돌아다니며 행선을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포터의 대를 이어 아들이 포터로 나온 걸 보고, 가난과 무지

오렌지카운티 정혜사, 성도재일 기념행사 개최

오렌지카운티에 있는 정혜사(주지 석타스님)는 1월 20일(일) 성도재일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를 했다. 오전 11시에 1부 행사로 성도재일 기념 기도법회를 하고 이어서 2부 행사로 성도재일 예술제를 가졌다.

석타 주지스님은 “신달타 태자가 6년 동안 수도하여 도를 깨쳐 부처님이 되시기 때문에 많은 중생은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을 얻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불자들은 탐욕과 성냄 그리고 어리석음 세 가지 독심으로 가득 찬 마음을 조금이라도 비우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여,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난 보람을 찾아 이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며 성도재일을 맞는 불자들의 마음 준비를 가르쳤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선을 통해 부처님의 마음을 닦고, 경전을 통해 염불하고 기도하면서 부처님의 말씀을 닦고, 계율을 지켜 부처님의

행동을 닮아 올바른 몸가짐으로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부의 성도 예술제는 유치부 및 초·중·고 학생부와 대학청년부 그리고 합창단이 그동안 정성을 모아 준비한 것을 참석한 불자들에게 보여주었다. 목탁에 맞춰 합창한 자세로 찬불가를 부르는 학생들을 보면서 부처님의 깨달음이 널리 널리 퍼져 한국불교가 미국의 전역을 포교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행복한 시간을 함께했다.

OC 정혜사 (714)995-3650

www.junghyesa.co



의 삶 속에 포터로 살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교육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해주시는 결심을 하게 됐다.

영봉스님은 카트만두 시내에 세종학당을 세우고 현재까지 1700여 명의 교육생을 배출했다. 2700m 산속 오지 파쁘레 마을에 세운 파쁘레 초등학교와 태국 미얀마 난민촌 불교중학교, 매솟 새생명초등학교는 스님의 새로운 수행처가 됐다. 스님이 직접 교사를 임용하고, 후원금으로 교사 월급부터 모든 학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 세종학당 졸업자 가운데 한국으로 취업한 노동자들이 자체적으로 후원회를

결성해 후배들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려왔다. 단체 이름은 ‘301 운동’. 30일 가운데 하루 일한 수입을 후원하는 취지에서 이런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영봉스님은 “학당에서 교육을 받은 청년이 한국에서 돈을 벌어서 가난의 대물림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행복하다”며 “비록 몸은 고되지만 평화로운 기쁨으로 충만하다”고 말했다.

글_ 불교신문 / 사진제공_ 이승현 작가

후원문의

cafe.daum.net/dreamofhimalnaya 히말라야의꿈

/ 이메일 towoo54@hanmail.net

미국 전역 한국 사찰, 2월 10일 설 합동 차례 및 정초기도 봉행



〈뉴욕 불광선원 어린이들이 스님들께 세배를 올리고 있다.〉

◇ **시카고 불타사**(주지 현성스님) : 100여 명의 불자들이 모인 가운데, 올 한해 평안과 조상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합동 제사를 지냈다.

◇ **뉴욕 불광선원**(주지 휘광스님) : 설날을 맞이해 조상님께 합동 차례를 올리고, 스님들께 세배를 올리며 한 해의 안녕을 기원했다.

◇ **키멜 삼보사**(주지 대만스님) : 불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초 법회를 갖고 계사년 한해 불자의 공덕이 성취되기를 기원했다. 주지스님은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그만큼 복을 많이 지어야 한다”고 덕담한 후 “청화 큰스님의 염불 수행법을 통해 가장 쉬우면서도 행복한 공부를 해 나가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워싱턴 보림사**(주지 경암스님) : 불자들이 조상의 은덕을 기리고 가족의 화평을 기원하는 합동 차례를 지냈다. 경암스님은

설법을 통해 “설날에 온 가족이 모여 조상님들께 차례를 올리는 건 한민족의 아름다운 미풍양속으로 길이 지켜나가야 한다”며 올 한해 불자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했다. 한편 보림사는 불자들을 대상으로 이민, 건강, 매디시, 오후 6시 등 하루 세 차례 1시간씩 매일 삼칠일 기도를 올리고 있다.

◇ **뉴욕 원각사**(주지 지광스님) : 큰 법당에서 계사년 음력 설날을 맞아 대법회를 가졌고 불자들은 돌아가신 조상을 기리는 차례를 올렸다. 이날 원각사에서는 법회가 끝난 후 어린이들이 어른들에게 세배를 올리는 등 한국 고유의 문화를 되새기며 명절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외 많은 한국 사찰에서 조상님께 합동 차례를 올리고 스님과 어른들께 세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샌프란시스코 보리사, 산호세 정원사로 이전

지난 2006년 10월 현 위치(5900 Shattuck Ave #100 Oakland, CA 94609)에서 첫 법회를 보기 시작한 보리사는 1월 27일 마지막 법회를 봉행하고, 2월 첫째 주 일요일인 3일부터 현 정원사(719 Lakehaven Dr. Sunnyvale, CA 94089)에서 법회를 보게 되었다.

보리사 부주지 소임을 맡았던 돈오스님이 정원사 주지를 맡게 되었고, 보리사 주

지 소임을 맡은 형전스님은 어린이부와 청년부 법사와 한글학교를 운영하며, 정원사에서는 총무 소임을 맡게 될 것이다.

새 주지 이·취임식은 3월 첫째 주 일요일인 3일 봉행되며, 지금 보리사는 이전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산호세 정원사 +1-408-745-0123

719 Lakehaven Dr. Sunnyvale, CA 94089

북가주 청년 불자 모임, 2월 정기법회 개최

지난 2월 2일 토요일 북가주 청년 불자들의 모임 “TARA”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불광사에서 2월 정기 법회 및 모임을 했다. 법회는 불광사에 상주하고 있는 효찬스님이 해주었으며, 법회가 끝난 뒤 TARA 회원들은 간단한 소개를 시작으로 정기 모임을 했다. 이번 법회 및 모임은 불광사를 시작으로 북가주 전 지역 사찰의 스님들을 찾아뵙고 법문을 듣기 위한 TARA의 2013년 상반기 계획 중 하나이다. 담당법사인 형전스님뿐만 아니라 다른 스님들의 법문을 청하여 좋은 말씀을 듣고, 한편으로는 북가주 불자들에게 모임을 알리고자 하는 것에 그 의미를 두었다. 그 결과로 몇몇 새

로운 젊은 불자들이 참여하여 모임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고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앞으로도 TARA는 여래사, 정원사, 대승사, 삼보사, 죽림정사, 영화사 순으로 많은 사찰을 찾아가 TARA를 알리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 한다.

글 정원사 총무 형전스님



카자흐스탄의 불교 유적지와 초원로에 대한 단상

내가 있는 우즈베키스탄은 실크로드의 중간 지점으로 인도와 중국 그리고 시리아 로마를 연결하는 삼각지인 아주 중요한 곳이다. 이번에 기회가 되어 중국의 북경-서안-우루무치-카자흐스탄 알마티-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를 돌아볼 수 있었는데 특별히 카자흐스탄 알마티 여행의 기억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다.

알마티는 “사과의 아버지”라는 의미가 있으며 약 3만 명이 넘는 고려인들이 사는 곳으로 과거 실크로드의 북방길 통로였기 때문에 인근에 적잖은 불교 유적지가 있다. 알마티에서 서북쪽으로 60km 떨어진 일리 강변에는 7-8세기의 불교 유적지가 있는데 강변의 암벽에 부처님과 보살님 등을 새겼고 티베트어로 이들 불보살님의 명호와 간략한 경구가 새겨져 있었다. 알마티에서 동북쪽으로 약 30km 가면 옛 불교 유적지가 있다고 하여 찾아갔더니 마을 사람들 말이 프랑스 고고학자들이 약간의 유물을 발굴하긴 하였으나 이 지역이 1900년대 초반 큰 지진으로 지형이 바뀌어 유적지가 소멸한 것 아닌가 했다고 한다. 풍수적으로 불교 사원이 있었다면 배산임수에 캐러밴의 행로를 고려해 제일 적합한 지역을 찾아 그곳에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불교 사찰을 만들기로 마음먹고 그곳 불자들에게 공표했다.

중국의 불교 전파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한나라 때 대월지에서 백마의 불상과 경을 가지고 와 낙양성에 모시고 “백마사”라고 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대월지는 시기상으로 아프가니스탄 힌두쿠시 산맥 이북과 우즈베키스탄 남부를 영토로 두었던 시기이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많은 불교 유물이 발굴되었거나 발굴하고 있다. 특히 현장스님이 “대당서역기”에 쓴 거대한 대탑과 ‘철문’은 현존하고 있고, 불탑의 근거가 되는 유적도 복원되었다. 혜초스님도 인도를 돌아보고 가시는 길에 약 4년 동안 이 지역에 머무셨다는 기록이 “왕오천축국전”에 있다. 이 지역은 그

동안 소련이 지배하고 있어 서방 학자들에게 공개가 안 되었다가 소련이 붕괴되면서 개방되어 고고학적 발굴을 토대로 불교 학술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기 시작하고 있어 앞으로 20~30년이 지나면 불교 역사, 특히 대승불교의 역사에 큰 반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는 가장 큰 잘못은 이 실크로드 외에 더 좋은 교역로가 그 북쪽에 있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고구려 시베리아를 거쳐 중앙아시아를 통하여 인도와 로마로 가는 길인 “초원의 길”이다. 이 길을 통하여 중국 쿠차 지역의 미라 유적지와 선선국 등에서 발굴된 코카서스 인종의 미라가 왕래하였고 고구려의 담비가죽이 로마에 고가품으로 수출되었다. 이 길은 고구려에서 유럽까지 인간이 살 수 있는 초원으로 덮여 있었다. 이 길에서 중국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4세기 로마를 점령했던 훈의 아틸라도 흉노 때문에 이 초원로를 통하여 유럽으로 로마로 확장하여 갔고 신라의 황남대총 황금보검과 독수리 머리 황금조각품, 사슴, 유리 등의 유물들도 이 초원로를 통하여 오갔던 것이다. 이렇게 중국을 배제한 채 고구려와 신라까지도 문명 교류를 이루어 온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서교류사를 연구할 때 실크로드와는 별개로 이 “초원로”를 반드시 연구해야 한다. 아울러 고구려 불교를 연구할 때도 이 초원로에 대한 고찰이 없다면 반쪽짜리 연구밖에 안 될 것이다.

이번 조사여행은 충분한 사전 준비 없는 단순한 여행에 가까웠지만 내가 불교와 한국의 역사를 배우면서, 혹은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면서 갖게 된 의문점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하고 정리하는 데는 큰 의미가 있었다. 차후 좀 더 준비된 조사를 한다면 왜곡되거나 알려지지 않았던 역사적 사실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불교를 배우고 부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지켜주신 역대 선배 스님들과 불자님들의 은혜에 감사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글 우즈베키스탄, 조주스님

산브루노 여래사, 정초 다례 및 일주일 기도 입재

산브루노 여래사(주지 소원스님)가 2월 10일 정초 다례 및 일주일 기도 입재식을 봉행하고, 계사년 한 해 부처님께 복 짓는 한 해가 되기를 서원했다. 이날 100여 명의 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래사 회주인 설조 큰스님이 화엄경 십지품에 나온 3가지 원리를 바탕으로 불자로서 계사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에 대해 법문을 했다.

스님은 “계사년에는 진실로 부처님께 의

지하고 공경하며 그 가르침을 마음에 지니고자 하는 수지원(受持願), 힘 따라 보살행을 하고자 하는 수행원(修行願), 가족부터 이웃에 이르기까지 불법을 전하고자 하는 법륜원(法輪願)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큰스님은 “이 3가지 발원을 지표 삼아 올 한해도 기쁨 떠나 힘들 때나 잘 이겨나가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산브루노 여래사 (650)588-8449 / 296-2183

佛塔주변에 보호 장벽을 구축하기 위한 요청

탁실라, 파키스탄 - 국내외 여행객들이 유네스코와 파키스탄의 중앙 및 지방 정부에 2세기 때의 담마라지카탑이라고 알려진 탁실라 가까이 있는 초기 불탑과 僧家院 주위에 설치된 벽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 벽 때문에 이 지역의 유일한 관광지인 불탑과 승가원에 대한 출입을 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관광객들의 발길이 완전히 끊어졌기 때문이다.

담마라지카탑은 BC 3세기 마우리아 왕조의 아소카 황제의 통치 기간 부처님의 사리를 보관하기 위해 지어진 8대 성지 중 하나이다. 이 성지는 계속 확장되면서 2세기에는 최대의 크기를 가지게 되었으며, 남쪽 탑 지역과 북쪽의 승가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후원이 부족하여 불교가 쇠퇴하였던 7세기 말까지 이곳의 공사는 계속되었다. 그 중요성과 의미를 보존하기 위해 유네스코는 그곳을 소유하여, 유적지를 1984년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하였고, 파키스탄 정부는 1975년 고대유물 법령에 이곳을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고대 유물법 22조 항에 보호구역으로 지정받은 곳에서부터 사무총장의 승인이

있지 않으면 다른 규칙이 동시대에 발생하지 않는 한, 200피트 내에 새로운 건물이나 개발 계획 등은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장소를 방문하였을 때 이미 유적지의 입구에 지역의 개인 개발자가 콘크리트벽과 거대한 문을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관광객을 위해 설치한 유적지의 안내판은 이미 근처의 가금류를 키우는 농장에 버려져 있었고, 고대 유적지라기보다는 한 개인 소유 건물의 모습을 띠고 있었다. 그래서 관광객들은 안내 지도에 적혀있는 관광지를 찾았으나, 현장에서는 지도에 나와 있는 유적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도로에서 헤매곤 했다.

네팔 관광객인 비할 프로다르는 “불교 유적지 주변에 개인 개발자가 벽을 설치했다는 사실에 놀랐다. 이 건물은 불교 신자들에게는 굉장한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며, 벽의 설치는 그 유적지의 신성함을 깨뜨리고 있는 듯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렇게 된 연유에 대해 유네스코가 잘 조사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수칸 아차라는 태국 관광객은 불교 유적지에 관광객들이 출입을 못한다는 사실에 대해 크게 유감을 표하였다. 이러한 제약



이 신앙에 큰 상처를 주는 행동이라고도 하였다.

“나는 라울핀디에서 물탄의 몇몇 친구들과 함께 탁실라의 고대 유적을 탐방하러 왔으며, 우리는 다섯 번이나 탑을 찾으려 했지만 실패했다.”고 국내 관광객 아사드 샤가 말하였다. 안내 표지판이 없어졌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며, 유적의 관리인들은 이 일에 대해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슬라마바드에서 온 다른 관광객 아니샤 칸박사는 고고학 부서의 무관심과 정부가 이러한 심각한 문제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는 것에 대해 규탄하였다. 그녀는 그 유적 주위에 벽을 세우고 입구에 문을 설치하는 행동은 세계 문화유산을 개인 소유화시키는 행동이라고 하였다.

▼ 탁실라 졸리양 승가원 입구와 중앙광장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샤드 후세인 고고학 部の 부국장에게 연락했을 때, 이 문제는 지방 행정부와 수익부서에서 담당할 것이며, 상황을 파악한 후 해결할 것이라고 하였다. 앞으로 관광객들의 출입이 보장될 것이며, 수익부서의 도움으로 개인 개발자와의 협의로 유적지로 들어갈 수 있는 접근 도로가 만들어질 것이라 하였다.

2007년 8월 6일에 파키스탄의 대법원이 파키스탄의 전역에 있는 유적지 주변의 모든 방해물을 제거하라고 명령하였다는 것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법원은 또한 4개의 주 관리자에게 각각의 주에 있는 유적지 주변의 방해물들을 제거하도록 명령하였다. 그 후 연방정부는 법원의 명령을 모든 주 장관들에게 전달하였다.

람잔 압둘라 박사, Pak Observer [2013. 1. 19]

‘산주산겐도(33간도 三十三間堂)’ - 일본 불교 미술의 훌륭한 컬렉션

교토, 일본 - 13세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금도금이 된 1,000개 이상의 목조불상들이 있는 일본 교토의 산주산겐도 사원은 일본 불교의 가장 뛰어난 문화유산 중 하나이다.

이 불교 사원의 정식 명칭은 “로터스 왕의 묘”를 의미하는 “렌게오인(Renge-o-in)”이지만 그것은 “산주산겐도(33 軒)”를 뜻하는 “기둥 사이의 33 공간의 본당”이라는 의미로 더 잘 알려졌다. 이 이름은 120미터

길이의 본당 지붕을 가지고 있는 기둥 사이의 33 공간을 의미하며, 세계에서 가장 긴 목조 건축물 중 하나로 간주한다.

33이라는 숫자는 불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것은 관음 또는 자비의 보살과 연관되어 고통에서 중생을 구제할 목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번영과 행복을 부여할 수 있는 33 형상에 관한 것이다.

산주산겐도 사원은 1,164년 관음보살에 대한 신심으로 국가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 시라카와 천황(1127-1192)의 요청으로 교토에 지어졌다. 원래 본당에는 관음입상만 124개가 있었다. 1249년 건물은 화재로 손실되었지만, 관음입상은 손실되지는 않았다. 본당은 원래의 구조와 같은 형태로 1266년에 재건되었고, 이후 이 건물은 4번의 개조가 있었지만, 건물의 모습은 13세기에 세워진 것과 유사하게 유지되고 있다.

■ 조각가 탄케이의 작품

일본의 유명한 조각가 탄케이(Tankei: 1173 ~ 1256)는 70여 명에 이르는 불교 조각가 제자들과 함께 화재 때문에 손상된 124개의 불상을 복원하고, 불상들의 중앙에 큰 자비 보살의 좌상을 만들었으며, 관음보살상 876개를 추가로 조각하고, 불법과 관음보살을 수호하는 28개의 사천왕, 바람과 천둥의 신을 나타내는 2개의 입상을 추가로 조성하였다.

사원의 주요 신, 센쥬 관음 또는 자비의 여신은 3.4미터 높이의 좌식 불상으로 만들어졌으며, 옷칠 코팅과 금도금으로 덮여 있다. 주요 불상의 측면에는 500개의 실제 크기(약 1.6미터)의 관음상이 일본 노송나무로

조각되어 있고, 금도금으로 덮여 있다. 50개의 불상이 10열로 불단에 모셔져 있다.

1,000개의 불상은 매우 비슷하지만, 불상마다 눈과 얼굴의 표현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부 불상은 다른 불상보다 얇은 편이며 일부는 옷에서도 작은 차이가 있다.

또한, 관음상 앞줄에 직선으로 서 있는 28개의 사천왕들 앞에는 관음을 수호하거나 협시를 하는 30개의 조각상이 있다. 맨 앞줄의 끝 부분에는 천둥의 신 라이진과 바람의 신 후진이 있다. 이 불상들의 크기는 1.56m와 1.70m정도로 측정된다. 불상 고유의 역할과 신비로운 특성에 따라 그들은 평화로운 표정을 가지기도 하고, 악기를 가지고 있거나 사납고 분노한 표정을 짓기도 하며, 건장한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고, 갑

옷을 입고 무기를 들고 있기도 한다. 몇몇 불상들은 크리스털 눈을 넣어 눈과 얼굴을 통해 생생한 표현을 전달하기도 한다.

현재, 사원에는 일본 불교 미술의 최고 수집품으로 1,031개의 입상을 모시고 있다. 이 불상들은 국보로 간주하며 일본의 중요 문화재로 가치가 있다.

산주산겐도의 불상은 문화유산과 일본의 정치, 종교, 예술의 발전에 인도 불교의 영향을 크게 보여준 예이다. 1,001개의 관음 불상과 사천왕을 포함한 이 사원에 있는 모든 불상은 매우 아름다우며, 7세기 이상 동안 잘 보존되어 남아 있다는 사실은 경이롭기까지 하다.

사원 내부에서의 사진 촬영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코르 I. 솔라, Digital Journal [2013. 1.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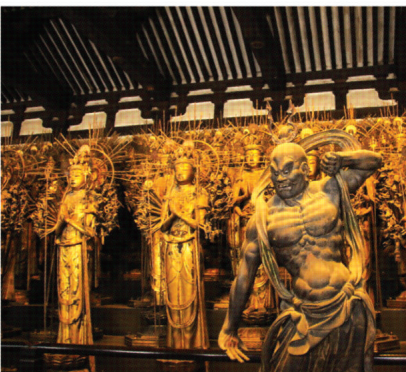
스리랑카를 위한 기금마련 행사 성공리 개최

해로우, 영국 - 2월 9일 조로아스터교 센터에서 열린 스리랑카 기금 마련 행사의 밤에 200여 명의 사람이 참석하였다. 거의 2천 파운드가 자선단체인 에이지 유케이 해로우가 추천한 해로우의 시장에 의해 모금되었다. 스리랑카 커뮤니티는 시장에게 화환을 걸어주며 환영을 하였고, 시장은 참석한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사람들이 영국 국가를 부른 후 해로우의 시장인 니잠 이스마일 의원은 “나는 전 지역 사회의 많은 사람이 기금 모금 행사를 후원하기 위해 함께 참석

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 에이지 유케이 해로우 자선단체는 모든 사람이 미래의 삶을 더욱더 유쾌하고 행복하게 하도록 개선하는 데 목표를 두고, 좋은 정보와 조언을 제공한다. 그래서 단체 그 자체가 매우 가치 있는 것이다.”고 연설을 했다. 전통적인 방식의 스리랑카 축제와 행운권 추첨은 모두에게 즐거움을 주었다.

에이지 유케이(Age UK)는 고령자들과 함께 일하고 고령자들을 위해 일하는 영국의 가장 큰 자선단체이다.

부디스트 채널 [2013. 2. 18]



불교음악, 일반 대중에게 가까이 다가서다

상해, 중국 - 클래식과 현대음악 그리고 모든 장르가 어우러지는 크로스 오버 등 불교 음악 콘서트가 설을 맞이하여, 새해 희망을 기원하기 위해 다가오는 봄 축제 기간 열릴 예정이라고 리 안란 리포트가 보도하였다.

불교의 예불 의식에서 유래된 불교 음악은 그 엄숙함과 부드러움으로 인해 일반 음악 애호가들 사이에서 점점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전통적인 중국의 악기와 함께 진행되는 고전적인 독경과 음악의 잔잔하고 편안한 느낌 때문에 불교 음악은 우아하고 품위 있으며 깊음이 있다고 평가되곤 한다.

2월 10일 시작되는 봄 축제는 24일까지 계속되는데, 22일에는 불교 음악을 주제로 하는 “빛나는 마음” 콘서트를 개최하며, 새해를 위해 기도를 하는 사람들과 함께 메르세데스 - 벤츠 아레나에서 공연될 것이다. 콘서트에는 대만의 팝 가수 취 유(濟豫 제예), 본토 가수 사 덩딩 및 쌍지 핑쿠오 그리고 찬불가 합창단과 상하이 제이드 붓다 사원의 전통 오케스트라뿐만 아니라 다른 음악가들도 대거 참가한다고 한다.

불교 음악은 인도의 승가에서 경전을 장엄하게 독경하는 것에서 유래되어 불교를 다른 나라에 전파할 수 있는 인도의 또 다른 방법으로 발달하였다. 음악, 찬송가, 불교 사원의 독경소리는 깊은 감성을 자극하여 상승시키고,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며, 명상할 수 있게 인도한다.

동부 후한 왕조(AD 25-220)가 통치하는 동안 불교는 중국에 전래되었다. 전래한 후 독경은 더욱 발달하였고, 중국 민속 음악의 음조를 흡수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승려들은 중국어로 번역된 경전에 궁중 음악과 고전적인 민속 음악을 함께 받아들였던 것이다. 위 황제 조조(AD 115-220)의 아들 조식(AD 192-232)은 시인으로 자신의 작품과 노



래로 유명했다. 그는 중국 스타일로 만들어진 최초의 불교 찬불가 “유산 Fanbei”를 썼는데, 이것은 중국 불교 음악의 기초가 되었으며, 훗날 중국의 판베이라고 불리었다. 종교에 뿌리를 둔 불교 음악은 많은 중국 통치자들에게 사랑을 받았으며, 여러 황제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다. 리양 왕조의 황제 우(AD 502-557)는 불교음악을 아주 사랑하였는데, 그 자신이 직접 “Da Huan”(큰 기쁨), “Tian Dao”(하늘의 길)와 “Mie Guo E”(악과 악업의滅) 등 여러 작품을 만들었다.

오늘날 불교 음악은 점점 현대화되고 있다. 가사는 모두 중국어로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고, 음악 스타일은 더욱 현대적으로 되어 가고 있다.

“불교 음악은 매우 부드럽고 조용하며, 마음을 울린다. 그리고 보다 차분한 마음을 만들기위해 예민한 마음을 이완시켜 준다.”고 제이드 붓다 사원의 승려 합창단의 가수인 쉰징 선사가 말하였다. 전통적으로 불교 승려들은 四物의 반주와 함께 독경하였다. “우리가 합창단을 결성했을 때, 우리는 대중이 불교음악을 받아들이기 쉽게 만

들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일부 오케스트라 연주는 매우 흥겹고 소리가 크다. 민속 악기는 다양하고 각각의 색채가 짙으며 음악을 풍부하게 만든다.

2009년, 최초의 멀티미디어 불교 뮤지컬 “홍의선사”가 제이드 붓다 사원, 상해 음악원, 상해극장 아카데미에 의해 공동으로 제작되었다. 이 뮤지컬은 홍의선사의 탄생 1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홍의선사는 음악, 그림, 연극, 서예와 시 등에 조예가 깊은 전설적인 불교 승려였다. 그는 많은 중국인에게 친숙한 “작별노래”를 만든 적이 있다.

이제 불교 음악은, 단지 종교의 영적 도움으로만 사용되지 않고, 일반 대중에게 접근하고 있다. 전통과 현대가 섞인 불교 음악의 새로운 작품은 많은 청취자에게 매력

적이다.

“현대의 사회생활이나 직업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보다 많은 젊은이가 불교 음악을 듣고 있다. 그들 중 일부는 음악 수업을 받으러 오고 있다.”고 쉰징 선사는 말한다. 콘서트에는 불교 음악으로 인기 있는 유명한 포크 가수이며 작곡가인 본토의 연기자 사 덩딩이 출연한다. 몽골 내 자치구 지역에서 태어난 그녀는 3개 언어로 노래하는데, 그것은 중국어, 산스크리트어, 티베트어뿐만 아니라 그녀가 발명한 ‘의미 없는’ 단어를 통해 감정을 표현하는 언어 등이다.

2007년 그녀의 앨범 “얼라이브(Alive)”는 불교 음악을 포함한 전통적인 중국 음악과 팝 등이 혼합되어 있다. 이 앨범은 동·서양 음악이 함께 어우러져 만들어졌다.

더 가디언의 평론가 로빈 덴셀로우이는 이 앨범에 높은 점수를 주고 “티베트어의 영향을 받은 독경은 전자음의 미묘한 사용을 절제함으로써 훨씬 더 성공적이다. 전통적인 동양과 현대적인 서양에 대한 사 덩딩의 시도는 현실적으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콘서트에서 그녀는 “쉰 시양”(“성스러운 향”) 등의 노래를 부르며, 모든 노래는 불교적인 색채가 짙은 음악들이다.

합창단과 오케스트라는 70명 이상의 연주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이드 붓다 사원에서 정기적으로 공연한다. 그리고 홍콩과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해외 공연도 하고 있다.

리 안란, 상하이 데일리 [2013. 2. 1]

불교 보물이라고 시사하는 천 년 전의 碑文 발견

간쑤, 중국 - 천 년 이상 되었다고 추정되는 돌 비문 한 덩어리가 중국의 간쑤사원 묘지에서 발견되었다.

벽돌에 쓰인 글씨들은 그 기원을 표시하고 있다. 이 비문은 정확히 천 년 전인 1013년 즈음에 새겨졌는데, 근처의 사찰에서 두 스님에 의해 수집된 2,000여 조각의 부처님 사리를 담은 관에 대해서도 새겨져 있었다. 또한, 240개의 佛像이 작은 관 모양으로 되어 있는 지하방에서 발견되었으며, 관의 하단에는 이곳에 대한 설명이 적혀있는 사각형 모양의 벽돌이 놓여 있었다.

간쑤지방 박물관의 前 이사인 추 시빈은 “이 관은 도자기로 만든 것이다. 우리는 이제까지 금속과 나무와 은으로 만든 관들이 발견되었을 뿐 세라믹 관을 발견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세라믹 관은 이미 부서진 상태였고, 관속에 나무 상자가 들어 있는 듯하였다. 그러나 그 관은 진흙으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둔황 동굴시대〉

벽돌 비문에 쓰여 있는 것처럼 2,000여 조각의 부처님 사리가 그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 발굴이 필요해 보인다.

추 前 이사는 “남겨진 사리조각들은 매우 작을 수 있지만, 그 사리들은 전부 2,000개 정도 있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불교 유적들은 보통 탑 아래의 지하방에 묻혀 있다. 하지만 이곳의 고고학자들은 불상 위의 또 다른 埋葬室을 발견하기도 하였다. 그 유물들이 어떤 유물들인지 그리고 어떤 시대의 것인지에 대한 것은 추가 발굴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CNTV [2013. 1. 31]

佛法 포교를 위해 독일로 간 스리랑카 승려

베를린, 독일 - 부두라자 마하비하라(Buduraja Maha Vihara)의 부주지스님인 디켈 시라수마나 스님은 2012년 12월 27일, 佛法을 전하기 위해 베를린 비하라(사원, Das Buddhistische Haus라고도 함)에 거주하는 두 번째 승려의 소임을 맡고 독일로 떠났다. 시라수마나 스님은 2010년 이후 비하라에 거주하고 있는 콘가스피티에 산타라키키타 스님과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포교하는 일에 전념할 것이다.

시라수마나 스님의 방문은 1952년 아소가 위라랏나에 의해 설립된 독일 전법단(German Dhamaduta Society)이 후원하고 있다.

스님은 아마라푸라 시리 사마마완사 마하닛까야(Amarapura Siri Saddhamawansa Maha Nikaya)의 회원이다. 스님은 1976년 수준이 높은 수계(Upasampada)를 받았으며, 학사(Peradeniya), 석사(Kelaniya) 그리고 쿨롬보 대학에서의 교육학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

56세의 스님은 담마 학교의 교장으로 재직하였고, 디켈라에 있는 비다툽가 피리베나(Vidyatunga Pirivena)에서 강의를 하기도 했다. 스님은 또한 그의 사원에서 명상 수업을 지도하고 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2년 동안 비하라에서 거주하며 승려 소임을 살았기 때문에 독일어도 잘하며 이번이 두 번째 방문이다.

1957년부터 스리랑카 및 다른 불교 국가의 승려들은 독일과 여러 서양 국가에 불법을 포교하기 위해 베를린 비하라에서 살고 있다.

스님들이 거주하고 있는 비하라로 변화된 ‘불교의 집’ (Buddhistische Haus)은 1924년에 집을 지었으며, 독일 철학자이자 독일 불교의 선구자였던 파울 달케(Paul Dahlke) 박사의 상속인으로부터 1957년 독일 전법단(German Dhamaduta Society)의 이사회를 대신하여 아소가 위라랏나의 이름으로 샀다. 베를린 비하라(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초기불교 센터)는 현재 독일의 국립 문화 유적지이다.

부디스트 채널 [2013. 2. 4]

지역마다 이주민과 함께하는 새해맞이 행사 열려

김천시 참한 며느리 되기, 김포 신년맞이 몽골씨름축제, 대구 몽골 차강사르, 스리랑카 뮤직 페스티벌

신년 맞이 몽골 씨름(부흐) 축제 김포에서 개최

지난 2월 3일(일)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대강당에서 김포마하이주민센터(대표 지관 스님)와 몽골 하트버트 재단이 주최한 '신년 맞이 몽골 씨름(부흐) 축제'를 60명의 재한 몽골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김포에 거주하는 몽골인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한 이번 행사는 김포 인근에서 생활하는 몽골공동체 단합과 고향의 정을 만끽하는 자리가 되었다. 또한 김포씨름협회(회장 박문수)와 한-몽골 문화·체육 교류 및 체험의 목적으로 한국의 전통씨름 시연과 친선경기를 통해 서로 문화에 대한 이해증진에도 노력하였다.

축제에 참가한 김포 씨름협회 박환희 코치는 '몽골씨름 참가 선수들이 전통의상을 착용하고, 신비한 춤사위 모습을 보면서 몽골인들의 전통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게 느껴졌고, 한국씨름도 하루속히 시민의 사랑을 받는 전통체육경기로 자리 잡기



를 간절히 기원했다'고 피력하였다.

경기 참가자 중 척어씨가 우승상품으로 삼십만 원 상당의 건강검진권 지급 받았다. 몽골부흐축제에 참가한 몽골인들은 김포에서 7월 '나담'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대표 지관스님께 요청하였고, 설날에 좋은 선물을 해주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전했다. 몽골의 최대 축제인 '나담'을 7월 김포에서도 개최되길 기대해본다.

김포마하이주민센터 031-985-0654



대구마하이주민센터, 스리랑카와 몽골 새해맞이 행사 열어



대구마하이주민센터(소장 이수찬)는 설날을 맞이하여 지난 2월 9일(토)과 10일(일), '아시안 뮤직페스티벌'과 몽골 새해맞이 행사를 열었다. 9일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경남 고성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아시안 뮤직페스티벌' 행사에는 대구달성공단과 고성지역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약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는 램프 켜기, 스리랑카 음식 바자 그리고 스리랑카에서 직접 초청한 가수들과 울산지역 스리랑카 록밴드의 연주, 댄스파티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뮤직페스티벌은 차후 여러 지역에서 공연을 준비하고 있어 스리랑카를 비롯해 아시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페스티벌로 발돋움을 준비하고 있다.

2월 10일에는 몽골의 설날인 차강사르를 축하하는 몽골 새해맞이 행사가 열렸다.

이날 참가자들이 직접 준비한 버브밀가루로 만들고 무늬를 넣은 전통빵(와 아이락, 술, 건포도, 호르혁(전통양고기요리), 밥, 과일, 사탕, 과자 등으로 새해 축하 상을 차리고, 수테차(우유차)와 보프(양고기만두)를 함께 나누어 먹으며 즐겁게 지냈다. 또한, 사가이를 비롯한 전통놀이와 흥겨운 노래 한마당 시간을 통해서 자국민들 간의 친선과 화합을 다졌다. 이주노동자 바이야르씨는 "한국에서 차강사르를 동료와 함께 맞이하게 되어 외롭지 않고 즐거운 시간이었다"며 반가움을 전했다.

더불어 대구마하이주민센터는 3월 9일 몽골문화센터 개원을 앞두고 있어, 센터를 중심으로 대구 경남지역 몽골인 이주민들의 노동 법률 상담, 교류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대구 마하이주민센터 053-592-1260

김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13년 설맞이 참한 며느리 되기"

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진오 스님)에서는 2월 7일(목)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교육실에서 결혼이주여성 45명을 대상으로 한국의 명절인 설날을 이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설을 맞아 결혼이주여성들이 명절음식과 제례법 등을 익혀 가족에게 당당하게 다가가도록 하고 모국의 명절이야기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는 '결혼이주여성 설맞이 참한 며느리 되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먼저, 장계향선향회 김천지회(회장 위순임)가 진행하는 예절교육에는 차례상 차리기와 절하는 법, 웃고름 매는 방법을 직접 시연을 통해 함께 체험했다. 이주여성 멜로디 바렌주엘라(24세)는 '웃고름을 매거나 절을 할 수 없어 아쉬웠는데 선생님의 지도로 이번 설날에는 시부모님에게 제대로

절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자두꽃봉사회(회장 이오봉)가 함께 참여하여 자리를 빛내고 행사를 더욱 뜻깊게 만들었다.

당근이나 계란 채 썰는 방법 등 고명을 만들고 끓이는 과정 하나하나 묻고 배워 팔꿈치고 구수한 떡국을 끓여 함께 먹으며, 모국의 명절이야기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랠 뿐만 아니라 한국의 명절을 즐기고 이해하였다.

본 센터는 1월 23일~2월 20일까지 주 2회 2시간씩 총 8회로 입국 1년 미만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기초반과 국적취득의 어려움을 없애기 위해 국적취득 대비반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차후 김천경찰서와 협력하여 운전면허 필기시험 대비반도 운영하는 등 생활밀착형 사업에 더욱 매진할 계획이다.

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53-439-8280

